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merittrading@hanafos.com

지난달의 기고처럼 국제시세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좀처럼 떨어질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업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국 내 유통가격보다 수입원가가 더 비싸짐에 따라 자체 제고로 시장을 유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다. 브라질 업체들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꾸준히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계육관련 무역업체들은 자신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으며, 몇몇 회사들은 축산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정도의 직원을 갖춘 회사의 경우 닭고기 무역만으로는 조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대다수의 분들이 체감하고 있다.

3~4년 전과 비교하면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무역업체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경우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간의 비율이 그나마 적정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였으나, 가격의 기복이 커짐에 따라 서로의 신뢰는 급속히 떨어져 대다수의 유통업체와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직접 수입하기에 이르러, 시장에서는 무역업체는 있고 유통업체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들 업체는 '안팔리면 우리가 쓰면 된다' 라는 초라한 기업이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공공연한 비밀로 직접 수입을 하고 있어, 수입육의 최종 소비자가 수입에 직접 가담함에 따라 더욱더 다양한 상품군들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가격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육 가격도 다소 상승할 것이다.

미국

3/4분기 중 가격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움직임은 지난달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 유통가격과의 큰 차이로 인해 대량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대 수익률은 100원인 반면 손실률은 300원인 까닭에 모두가 소극적이다.

해외 닭고기 시장 동향 및 전망

이러한 시장을 반영했는지, 6월 들어 미국산 왕장각(Jumbo Whole Legs)과 넓적다리(Bone In Thigh) 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며, 조각당 220~240g과 같은 사이즈 장각(Size Regular Whole Legs)의 경우 품귀현상이 발생해 7월 중반에는 1,900~2,0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가격이 톤당 100~200불 상승했으며,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3개월간 톤당 300~400불 정도가 오른 것이다.

날개의 경우 홍콩으로 판매되는 통날개(90g 이상/조각당)는 2,000불에 도달했으며, 한국에서 원하는 사이즈 통날개의 경우 2,300불 정도에 이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내 유통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과 식자재 업체의 경우 사전에 계약을 해서 원가를 낮추거나 직접 무역을 병행하고 있고, 사용하고 남은 물량은 원가를 보존하는 선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가


격 보다 100~200원 낮은 가격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덴마크

덴마크 제1의 업체인 ROSE사의 경우 7월 선적분과 8월 선적분 일부를 제3국에 판매했고, 한국행 8월 선적분 가격은 톤당 2,570불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다소 비싼 가격이나, 이것이 실제적인 국제시세이다. IQF 장각의 경우 2,200불 정도에 도달하고 있다.

결론

금년 들어 전 세계 가금육 공장들은 과거의 손실을 만회함은 물론 최대의 수익을 모색하고 있다. 냉동 창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으며,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활발하게 교역하고 있다.

그들은 이 수익력을 바탕으로 공장을 재정비하고 M&A를 통해 규모의 경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덴마크 ROSE사의 경우 꾸준한 M&A로 수년 내에 덴마크 유일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초복(7월 15일) · 중복(7월 25일) · 말복(8월 14일)에는

삼계탕으로 더위를 이기세요!

